



## 동의보감 속 “삼리”의 ‘족삼리’ · ‘수삼리’ 여부 판별

김재현<sup>1</sup> · 추홍민<sup>1</sup> · 강연석<sup>2,3</sup>

<sup>1</sup>원광대학교 한의과대학, <sup>2</sup>원광대학교 한의과대학 의사학교실, <sup>3</sup>원광대학교 전통의학연구소

### On Identifying Samni in *Dongui-Bogam* as Joksamni(ST36) or Susamni(LI10)

Jaehyun Kim<sup>1</sup>, Hongmin Chu<sup>1</sup>, Yeonseok Kang<sup>2,3</sup>

<sup>1</sup>College of Korean Medicine, Wonkwang University,

<sup>2</sup>Department of Medical History, College of Korean Medicine, Wonkwang University

<sup>3</sup>Research Center of Traditional Korean Medicine

**Objectives :** This article examines whether ‘Samni’, which appears 62 times in *Dongui-Bogam: Treasured Mirror of Eastern Medicine*, means Joksamni(ST36) or Susamni(LI10). **Methods :** After searching the sentences which include ‘Samni’ in *Dongui-Bogam* using Medical Classics Database, we checked the original reference of them to find clues to identification of Samni. As for the statements not identified by the original reference nor by *Dongui-Bogam*, we judged the meaning of Samni by comparing diseases of the statements with those of Joksamni or Susamni’s treatment area. Acupoints used together with Samni were also taken into account. **Results :** Out of 52 statements, Samni in 25 statements turned out to be Joksamni after tracing the reference; 6 statements mention stomach, and 4 statements treat Samni as an acupoint of stomach meridian; in 12 statements, diseases belong to Joksamni’s treatment area. Samni of the remaining 5 statements also seem to be Joksamni since the diseases of the statements are similar to those of Joksamni. It implies that Joksamni’s treatment area has expanded over time. **Conclusions :** All Samni in *Dongui-Bogam* is Joksamni.

**Key words :** Joksamni, ST36, Susamni, LI10, Samni, *Dongui-Bogam*, *Treasured Mirror of Eastern Medicine*

## 서론

동의보감에는 삼리(수삼리/족삼리), 오리(수오리/족오리), 규음(두규음/족규음), 임읍(두임읍/족임읍), 통곡(북통곡/족통곡), 양관(요양관/슬양관), 상렴(상렴/상거허), 하렴(하렴/하거허) 등 총 8개의 동명이혈(同名異穴, 이름이 같지만 부위가 다른 경혈)이 등장한다.<sup>(1)</sup> 동의보감 침구편에서는 각 경혈이 경락에 따라 분류되어 있고 혈자리 위치가 설명되어 있기 때문에 판별에 문제가 없지만, 동의

보감 각 장의 말미에 있는 침구법에서는 ‘足三里’(18회), ‘巨虛上廉’(3회), ‘巨虛下廉’(3회), ‘手三里’(2회), ‘手上廉’(1회)라고 명기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들 혈명이 단순히 ‘三里’(40회), ‘竅陰’(8회), ‘臨泣’(6회), ‘通谷’(5회), ‘陽關’(2회), ‘下廉’(2회), ‘上廉’(1회), ‘五里’(1회)라고만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경혈의 위치를 판단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름이 같은 경혈을 혼동하는 문제는 한의학의 역사에서 상존해 온 문제이다. 황룡상은 그 예로 『外臺秘要』에서 족규음의 주치를

Received October 4, 2016, Revised October 28, 2016, Accepted October 31, 2016

Corresponding author: **Yeonseok Kang**

Department of Medical History, College of Korean Medicine, Wonkwang University, 460, Iksan-daero, Iksan 54538, Korea

Tel: +82-63-850-6984, Fax: +82-63-850-6984, E-mail: yeonkang@wku.ac.kr

This work was supported by 2015 Research Grant of Wonkwang University.

©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두구음에 잘못 편집해 넣은 경우, 『銅人腧穴鍼灸圖經』에서 북통곡의 주치를 족통곡에 귀속시킨 경우, 『西方子明堂灸經』에서 슬양관의 주치중을 요양관 아래에 잘못 수록한 경우 등을 지적하였다. 또한 『鍼灸聚英』에서는 동명혈 주치를 두 경혈 모두에 각각 귀속시켰기 때문에 주치 내용이 전대 의서에 비해 훨씬 많아지게 되었고, 『鍼灸大成』 또한 이같은 오류를 답습하였다.<sup>(2)</sup> 따라서 동명이혈의 판별은 침구서적을 의학사적으로 해석하는 데 있어 중요한 작업이라 할 수 있으며, 침구서적의 임상적 활용에 있어서도 의미를 가진다.

본 논문에서는 동의보감 속 삼리가 족삼리인지 수삼리인지 판별하였다. ‘三里’는 동의보감 전체에서 가장 많이 출현하는 혈명어이면서도,<sup>(3)</sup> 동의보감 내에서 삼리, 족삼리 및 수삼리라는 명칭이 혼용되고 있다. 그러므로 삼리가 족삼리인지 수삼리인지를 판별하는 것은 동의보감의 침구학적 활용을 위해 일차적으로 필요한 과제라고 볼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삼리를 기재하고 있는 총 62개 조문 중 족삼리인지 수삼리인지 판별이 필요한 52개 조문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 연구방법

### 1. 동의보감 속 삼리가 포함된 문장의 선별

한의학고전DB(<https://www.medicclassics.kr/>)에서 ‘삼리’를 검색하여 삼리, 수삼리, 족삼리를 포함한 총 84개 조문을 확인하였다. 족삼리(20개) 및 수삼리(2개)라고 명기되어 있는 조문을 제외하면 단순히 ‘三里’라고 기재된 조문은 총 62개이다. 이 가운데 침구편 「手陽明大腸經左右凡四十六穴」(2개) 및 「足陽明胃經左右凡九穴」(8개)에서 나타나는 10개의 삼리 조문은 판별이 불필요하므로 본 논문에서는 총 52개 조문을 판별의 대상으로 하였다.

### 2. 원출전 문헌 조사

해당 52개 조문의 원출전을 모두 확인하였다. 그 결과 원출전에 삼리가 ‘足三里’, ‘足陽明經三里’ 등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 위(胃)

나 족삼리 주치가 언급되어 있는 경우, 삼리를 다리에 위치한 경혈로 인식한 경우, 삼리와 족삼리가 동일한 의미로 병용된 경우 등이 있었다.

### 3. 동의보감 문장 속의 근거로 판단

동의보감 문장 내에서 위(胃)가 직접적으로 언급되거나, 삼리가 위경(胃經)의 합혈로서 등장하는 경우 해당 문장의 삼리를 족삼리로 판단하였다.

### 4. 해당 문장의 주치와 족삼리 혹은 수삼리 주치와의 비교

원출전 혹은 동의보감에서 삼리의 족삼리 및 수삼리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문장에 대해서는 해당 문장의 병증이 족삼리 주치에 해당하는가 수삼리 주치에 해당하는가를 확인하였다. 황제내경, 침구잡요경, 침구자생경, 의학강목, 동의보감 등을 기준으로 하였다.

### 5. 이상의 방법으로 삼리의 족삼리 및 수삼리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문장에 대한 검토

위 사항에 모두 해당되지 않아 논의가 필요한 조문에 대해 주치 및 동용혈을 근거로 족삼리 및 수삼리 여부를 판단하였다.

## 결 과

### 1. 원출전을 확인한 결과 족삼리임을 알 수 있는 경우

1) 원출전에 ‘足三里’, ‘足陽明經三里’, ‘三里…在膝下三寸’ 등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Table 1): 「風」문의 『鍼灸資生經』이 출전인 세 문장은 침구자생경을 확인한 결과 ‘足三里’로 기재되어 있었다. 「風」문의 『普濟本事方』이 출전인 문장 또한 확인 결과 ‘足三里’로 기재되어 있었다.

「神」, 「胞」, 「積聚」, 「婦人」문 문장은 출전인 『醫學綱目』을 확인한 결과 원출전이 『鍼經摘英集』임을 확인하였고, 침경적영집을 다시 확인한 결과 ‘足陽明經三里’라고 기재되어 있었다.

또한 「眼」문 문장은 출전인 의학강목을 확인한 결과 원출전이 『扁鵲神應鍼灸玉龍經』임을 확인하였고, 편작신응침구옥룡경을 다시 확인한 결과 ‘三里’ 뒤에 ‘在膝下三寸’이라는 부연설명이 있었다. 「寒」문에 등장하는 문장 또한 출전인 『衛生寶鑑』을 확인한 결과 ‘在膝下三寸’이라는 설명이 있었고, 「嘔吐」문 문장 또한 출전인 『萬病回春』을 확인한 결과 “在膝下三寸”이라는 부연설명이 있었다.

2) 원출전의 해당 장에 위(胃) 혹은 족삼리 주치가 언급되어 족삼리임을 알 수 있는 경우(Table 2): 「神」문 문장의 경우 의학강목에

(1) 황룡상은 이상의 8개 동명혈에 ‘通里’(수소음십경과 경외기혈에 각각 한 개)를 더해 일반적으로 침구서적에는 9개의 동명혈이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동의보감에서는 침구편 「奇穴」이나 「別穴」장에 따로 통리라는 혈명이 등장하지 않으므로 동의보감에 나타나는 통리는 모두 수소음십경 경혈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黃龍祥, 中國針灸學術史大綱, 3<sup>rd</sup> edition, 서울: 법인문화사, 2005 : 86.

(2) Ibid., 920, 927-8, 933.

(3) 한의학고전DB(<https://www.medicclassics.kr/>)에 따르면 삼리라는 명칭은 족삼리(20회), 수삼리(2회)를 제외하고 총 62회 등장한다. 참고로 기해는 60회, 중완은 58회, 합곡은 49회, 관원은 45회, 백회는 36회 등장한다.

서는 관련 구절을 찾을 수 없다. 『鍼灸甲乙經·卷之九』 「邪在心膽及諸藏府發悲恐太息口苦不樂及驚第五」가 출전인 것으로 보인다. “心中澹澹然·調其虛實以去其邪”는 『靈樞·四時氣』에 나오는 문장으로 “取三里以下胃氣逆”이라는 구절을 통해 해당 삼리가 족삼리임을 알 수 있다.

「脇」문 문장의 출전은 모두 『醫學綱目·卷之十四 肝膽部』 「脇

痛」인데, 이 장에 ‘협통에 삼리를 보하여 위중(胃中)을 따뜻하게 한다’는 구절이 있으므로 해당 문장의 삼리는 족삼리임을 알 수 있다.

「咳嗽」문 문장은 출전이 『醫學綱目·卷之二十二 脾胃部』 「噦」이므로, 팔곡질을 비위부(脾胃部)에 속한 것으로 여겼음을 알 수 있다. 위경(胃經)의 모혈인 중완 및 다리에 위치한 행간과 함께 쓰였다는 점도 참고할 수 있다.

Table 1. A Case that ‘Samni’ is Actually Written as ‘Joksamni’, ‘Zu-Yangming-Meridian Samni’, or ‘Samni; 3 Cun below the Knee’ in the Reference

| Dongui-Bogam |   | References                              |   |
|--------------|---|---|---|
| Chapter      | Sentences   | Title & Chapter                         | Sentences   |
| 神            | 鍼灸法<br>癘病, 取鳩尾·後谿·湧泉·心俞·陽交·三里·大衝·間使·上脘. 凡癘病, 必先下之, 乃可灸. 不然則氣不通, 能殺人. 鍼不拘此. <綱目>   | 『鍼經摘英集』 「治風癘, 熱病, 心風驚癘, 霍亂吐痢, 伏梁氣狀如覆杯」* | 刺任脈上脘一穴. 次鍼足陽明經三里二穴.  |
| 胞            | 鍼灸法<br>月經斷絕, 取中極·三陰交·腎俞·合谷·四滿·三里. <綱目>  | 『鍼經摘英集』 「治婦人經脈不通」*                      | 刺手陽明經曲池二穴, 手少陽經支溝二穴, 足陽明經三里二穴, 足太陽經三陰交二穴. 如經脈壅塞不通者, 瀉之立通; 如經脈虛耗不行者, 補之經脈益盛即通行矣.                               |
| 眼            | 鍼灸法<br>目昏暗, 灸三里, 鍼承泣. 又取肝俞·瞳子膠. <綱目>  | 『扁鵲神應鍼灸玉龍經』 「目昏」**                      | 肝家血少目昏花, 肝俞之中補更佳. 三里瀉來肝血益, 雙瞳朗朗淨無瑕. ……三里: 在膝下三寸, 貼骨外廉. 鍼三分, 瀉之.   |
| 風            | 卒中風救急<br>「牛黃金虎丹」<br>范子默, 中風涎塞不語. 服金虎丹四丸, 氣不通, 涎不下, 魂魄飛揚, 如墮江湖中, 頃欲絕. 即灸聽會·頰車·地倉·百會·肩髃·曲池·風市·三里·絕骨·耳前髮際·大椎·風池, 氣遂通. 吐痰一椀, 繼又下十餘行, 伏枕半月, 遂平. 此蓋灸百會之力, 其吐瀉, 乃服金虎丹之功也. <資生> | 『鍼灸資生經·第四』 「中風」                         | 范子默……氣塞涎上 不能語…本事方云, 十二穴者, 謂聽會, 頰車, 地倉, 百會, 肩髃, 曲池, 風市, 足三里, 絕骨, 髮際, 大椎, 風池也. 依而用之. 立效.                        |
| 風            | 鍼灸法<br>凡覺手足或麻或痛, 良久乃已, 此將風中府之候. 宜灸百會·曲鬢·肩髃·曲池·風市·三里·絕骨. <資生>  | 『鍼灸資生經·第四』 「中風」                         | 手足不隨. 其狀覺手足或麻或痛. 良久乃已. 此將中府之候……集效百會, 曲鬢, 肩髃, 曲池, 風市, 足三里絕骨, 共十三穴  |
| 風            | 鍼灸法<br>凡覺心中憤亂, 神思不怡, 或手足麻痺, 此將風中藏之候. 宜灸百會·風池·大椎·肩井·曲池·間使·三里. <資生>   | 『鍼灸資生經·第四』 「中風」                         | 灸風中藏. 氣塞涎上不語. 極危者. 下火立效. 其狀覺心中憤亂. 神思不怡. 或手足麻. 此將中藏之候……百會, 風池, 大椎, 肩井, 曲池, 間使, 足三里, 共十二穴.                      |
| 風            | 鍼灸法<br>卒中風, 喎斜涎塞不省, 宜灸聽會·頰車·地倉·百會·肩髃·曲池·風市·三里·絕骨·耳前髮際·大椎·風池, 凡十二穴. <本事>   | 『普濟本事方·卷第一·中風肝膽筋骨諸風』 「蘇合香丸」             | 范子默記崇寧中凡兩中風, 始則口眼斜, 次則涎潮閉塞, 左右共灸十二穴得氣通, 十二穴者, 謂聽會, 頰車, 地倉, 百會, 肩髃, 曲池, 風市, 足三里, 絕骨, 髮際, 大椎, 風池也. 根據而用之, 無不立效. |
| 寒(下)         | 痼冷<br>「加減白通湯」<br>治沈寒痼冷, 臍腹冷痛, 大便自利, 足經寒而逆. 附子(炮) 二錢, 乾薑(炮)·肉桂·草豆蔻煨·半夏·人參·白朮·甘草(灸) 各一錢. 右剉, 作一貼, 入薑 五片, 葱白 五莖, 水煎服. 仍灸氣海·三里穴. <寶鑑>                                       | 『衛生寶鑑·卷二十二』 「附寒治驗·加減白通湯」                | ……三里二穴. 在膝下三寸肝外廉兩筋間 取足舉之. 足陽明脈所入合也 可久三壯 鍼入五分  |
| 嘔吐           | 鍼灸法<br>反胃神效, 膏肓俞, 灸百壯, 晝中·三里, 各灸七壯. <回春>  | 『萬病回春·卷之三』 「翻胃·二豆回生丹」                   | 灸法 治翻胃神效. 膏肓(二穴, …… 灸至百壯為佳), 膈中…… 三里(二穴, 在膝下三寸, 胛外廉兩筋間, 灸七壯.)   |
| 積聚           | 鍼灸法<br>伏梁, 取上脘·三里.  | 『鍼經摘英集』 「治風癘, 熱病, 心風驚癘, 霍亂吐痢, 伏梁氣狀如覆杯」* | 刺任脈上脘一穴. 次鍼足陽明經三里二穴.  |
| 婦人           | 鍼灸法<br>產後血暈, 取三里·三陰交·陰交·神門·關元. <綱目>   | 『鍼經摘英集』 「治產婦血暈不省人事」*                    | 鍼手少陽經支溝二穴, 足陽明經三里二穴, 足太陽經三陰交二穴.   |

\*『神』, 『胞』, 『積聚』, 『婦人』문 문장은 출전인 『醫學綱目』을 확인한 결과 원출전이 『鍼經摘英集』임을 확인하였고, 이에 따라 『鍼經摘英集』을 다시 확인하였다.

\*\*『眼』문 문장은 출전인 『醫學綱目』을 확인한 결과 원출전이 『扁鵲神應鍼灸玉龍經』임을 확인하였고, 이에 따라 『扁鵲神應鍼灸玉龍經』을 다시 확인하였다.

Table 2. A Case that the Reference Mentions Stomach along with Samni, or Phrases Related to Joksamni

| Dongui-Bogam              |  |                                    | References  |  |
|---------------------------|--|------------------------------------|---|--|
| Chapter                   | Sentences  | Title & Chapter                    | Sentences   |  |
| 神 鍼灸法                     | 心澹澹大動, 取大陵·三里.<br>《綱目》                                 | 『鍼灸甲乙經·卷之九』「邪在心膽及諸藏府發悲恐太息口苦不樂及驚第五」 | 心痛善悲, 厥逆, 懸心如飢之狀, 心澹澹而驚, 大陵及間使主之. ……心中澹澹然, 胃氣逆則嘔苦汁, 故日嘔膿. ……取三里以下胃逆, 刺足少陽血絡以閉膽, 調其虛實以去其邪. |  |
| 脇 鍼灸法                     | 脇痛, 取懸鍾·竅陰·外關·三里·支溝·章門·中封·陽陵泉·行間·期門·陰陵泉. 《綱目》          | 『醫學綱目·卷之十四 肝膽部』「脇痛」                | 『內經』灸刺脇痛有三法: …… 補三里以溫胃中   |  |
| 脇 鍼灸法                     | 胸脇脹痛, 取公孫·三里·太衝·三陰交. 《綱目》                              | 『醫學綱目·卷之十四 肝膽部』「脇痛」                | 『內經』灸刺脇痛有三法: …… 補三里以溫胃中   |  |
| 咳嗽 鍼灸法                    | 氣逆發噦, 取膻中·中腕·肺俞·三里·行間. 《綱目》                            | 『醫學綱目·卷之二十二 脾胃部』「噦」                | 『醫學綱目·卷之二十二 脾胃部』  |  |
| 鍼灸篇 足太陽膀胱經左右凡一百二十六穴·膏肓膈二穴 | 千金方, 於諸穴治病, 各分主之, 獨於膏肓·三里·湧泉, 特云治雜病, 蓋是三穴, 無所不治也. 《資生》 | 『鍼灸資生經·第三』「虛損」                     | 若不灸三里, 令氣上衝目  |  |
| 鍼灸篇 主病要穴                  | 膏肓膈·三里·湧泉, 百病無所不治. 《入門》                                | 『鍼灸資生經·第三』「虛損」                     | 若不灸三里, 令氣上衝目  |  |
| 鍼灸篇 主病要穴                  | 若要安, 丹田·三里, 不曾乾. 《資生》                                  | 『鍼灸資生經·第三』「虛損」                     | 若不灸三里, 令氣上衝目  |  |

Table 3. A Case that the Reference Regards Samni as in the Leg

| Dongui-Bogam |   |                 | References  |  |
|--------------|---|-----------------|---|--|
| Chapter      | Sentences   | Title & Chapter | Sentences   |  |
| 足 鍼灸法        | 脚氣初發, 先灸風市, 次伏兔, 次犢鼻, 次三里, 次上廉, 次下廉, 次絕骨, 日日報灸, 以百壯為率. 《資生》 | 『鍼灸資生經·第五』「脚氣」  | 凡病一脚, 則灸一脚, 病兩脚, 則灸兩脚. 凡脚弱病, 皆灸兩脚. 一方云: 如覺脚惡, 便灸三里及絕骨各一處. |  |
| 足 鍼灸法        | 膝腫, 以火鍼刺三里, 其腫如失. 又取行間. 《資生》                                | 『鍼灸資生經·第五』「脚腫」  | 謾以鍼置火中令熱, 於三里穴刺之, 微見血. 凡數次, 其腫如失去.                        |  |
| 足 鍼灸法        | 脚氣, 速灸風市·三里, 以瀉毒氣. 《資生》                                     | 『鍼灸資生經·第五』「脚氣」  | 凡病一脚, 則灸一脚, 病兩脚, 則灸兩脚. 凡脚弱病, 皆灸兩脚. 一方云: 如覺脚惡, 便灸三里及絕骨各一處. |  |
| 足 鍼灸法        | 脚弱瘦削, 取三里·絕骨. 絕骨, 治脚疾, 神效. 《資生》                             | 『鍼灸資生經·第五』「脚弱」  | 有人久患脚弱且瘦削, 後灸三里, 絕骨, 而脚如故.                                |  |

「鍼灸篇·足太陽膀胱經左右凡一百二十六穴·膏肓膈二穴」의 문장 및 「主病要穴」의 “若要安, 丹田·三里, 不曾乾” 문장은 출전인 『鍼灸資生經·第三』「虛損」장에 ‘若不灸三里, 令氣上衝目’라는 구절이 등장한다. 본 구절은 『鍼灸資生經 第一』「足陽明胃經左右三十穴」의 족삼리 주치에 등장하고, 동일한 문장이 동의보감 침구편 「足陽明胃經左右凡九穴·三里二穴」에도 나타나므로 본 문장의 삼리는 족삼리라고 판단할 수 있다.

「足太陽膀胱經左右凡一百二十六穴·膏肓膈二穴」의 문장과 「主病要穴」“膏肓膈·三里·湧泉, 百病無所不治.” 문장은 사실상 동

일한 내용이나, 전자는 《資生》, 후자는 《入門》에서 인용했다고 되어 있다. 하지만 의학입문 「治病要穴」의 ‘足三里…上中下部疾無所不治’라는 구절이 ‘百病無所不治’와 비슷할 뿐, 고향·삼리·용천을 함께 언급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문장의 원출전은 침구자생경인 것으로 보인다.

3) 원출전의 해당 장에 삼리를 다리에 위치한 경혈로 인식한 서술이 존재하는 경우(Table 3): Table 3 문장들의 출전인 『鍼灸資生經·第五』「脚氣」, 「脚腫」, 「脚弱」장에 삼리를 다리에 위치한 경혈로 인식한 서술이 존재한다. 또한 “脚氣初發, 先灸風市, 次伏兔, 次犢鼻, 次三里, 次上廉, 次下廉, 次絕骨, 日日報灸, 以百壯為率.” 문장에서는 족양명위경의 경혈을 위에서부터 아래로 순서대로 나열하고 있다. 족삼리가 각기팔처혈의 하나인 점, 「足」문 침구법의

(4) 『東醫寶鑑·足』「鍼灸法」“脾痛脛痠, 取陽陵泉·絕骨·中封·臨泣·足三里·陽輔.”

Table 4. A Case that Samni and Joksamni are Used as Same Meaning in the Reference

| Dongui-Bogam |  | References         |   |
|--------------|--|--------------------|---|
| Chapter      | Sentences  | Title & Chapter    | Sentences   |
| 風 鍼灸法        | 凡人, 非時足脛上及手食指次指, 忽痠疼麻痺, 良久方解, 此將中風之候. 急灸三里·絕骨 各三壯. 春秋報灸, 常令兩脚有灸瘡爲妙. 《資生》 | 『鍼灸資生經·第四』<br>「中風」 | 范子默……氣塞涎上 不能語……本事方云, 十二穴者, 謂聽會, 頰車, 地倉, 百會, 肩髃, 曲池, 風市, 足三里, 絕骨, 髮際, 大椎, 風池也. 依而用之. 立效.(Table 1. 風)     |
| 風 鍼灸法        | 治風七穴, 百會·耳前髮際·肩井·風市·三里·絕骨·曲池. 一方, 加有風池·合谷·肩髃·環跳, 凡九穴. 《資生》 凡中風, 皆灸之.     |                    | 手足不隨. 其狀覺手足或麻或痛. 良久乃已. 此將中府之候. …… 集效百會, 曲鬢, 肩髃, 曲池, 風市, 足三里絕骨, 共十三穴(Table 1. 風)                         |
| 風 鍼灸法        | 半身不隨, 宜灸百會·顛會·風池·肩髃·曲池·合谷·環跳·風市·三里·絕骨. 《資生》                              |                    | 灸風中藏. 氣塞涎上不語. 極危者. 下火立效. 其狀覺心中憤亂. 神思不怡. 或手足麻. 此將中藏之候. …… 百會, 風池, 大椎, 肩井, 曲池, 間使, 足三里, 共十二穴.(Table 1. 風) |

Table 5. A Case that the Sentence Mentions Stomach along with Samni

| Chapter of Dongui-Bogam |        | Sentences in Dongui-Bogam         |  |
|-------------------------|--------|-----------------------------------|--|
| 寒(下)                    | 鍼灸法    | 氣街·三里·巨虛上·下廉, 此八者, 以瀉胃中之熱也.       |  |
| 內傷                      | 鍼灸法    | 胃弱不思飲食, 取三里·三陰交.                  |  |
| 內傷                      | 鍼灸法    | 胃病, 飲食不下, 取三里. 《東垣》               |  |
| 嘔吐                      | 鍼灸法    | 善嘔, 嘔有苦者, 邪在膽, 逆在胃, 取三里·陽陵泉. 《內經》 |  |
| 瘧疫                      | 鍼法     | 氣街·三里·巨虛·上下廉, 此八者, 以瀉胃中之熱也.       |  |
| 鍼灸篇                     | 人身四海腧穴 | 胃爲水穀之海, 其脈上在氣街, 下在三里.             |  |

한 문장에서 ‘足三里’가 등장하는 점 또한 참고할 수 있다.<sup>4)</sup>

4) 원출전의 해당 장에서 삼리와 족삼리가 동일한 의미로 병용된 경우(Table 4): Table 4의 문장들 및 Table 1 「風」문 문장 가운데 『鍼灸資生經』이 출전인 세 문장은 모두 출전이 『鍼灸資生經·第四』 「中風」인데, 해당 장에서 ‘三里’와 ‘足三里’라는 명칭이 병용되고 있다. 동의보감에서 이 중 Table 1의 문장을 인용할 때 ‘足三里’를 모두 ‘三里’로 바꾸어 인용하였다. 동의보감 편찬자들이 삼리를 곧 족삼리라고 생각한 것인지, 혹은 단순히 하나의 장 내에서 통일성을 기하려 한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어느 쪽이 되었든 동의보감 풍문에서 쓰인 삼리는 모두 족삼리의 의미로 쓰인 것이라 볼 수 있다. 족삼리가 중풍칠치혈의 하나인 점 또한 참고할 수 있다.

## 2. 문장의 맥락상 족삼리임을 알 수 있는 경우

1) 문장 내에서 위(胃)가 직접적으로 언급되어 족삼리임을 알 수 있는 경우(Table 5): 「寒」과 「瘧疫」문의 문장에서 위중(胃中)의 열을 사(瀉)하는 기능이 있는 혈로 기충·상거허·하거허 등 위경(胃經)의 혈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본 삼리 또한 족삼리임을 알 수 있다. 「內傷」문의 두 문장에서는 위병(胃病)의 주치혈로서 삼리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본 삼리는 위경(胃經)의 대표혈인 족삼리를 가리

키는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또한 「嘔吐」문의 문장에서 「邪在膽, 逆在胃」이라는 구절 후 담경(膽經)의 혈인 양릉천과 더불어 삼리가 제시되어 있으므로 본 삼리는 위경(胃經)의 혈인 족삼리임을 알 수 있다.

「鍼灸篇」문장은 위경(胃經)의 수혈로서 기충과 삼리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본 삼리는 족삼리임을 알 수 있다.

2) 위경(胃經)의 합혈로서 등장하여 족삼리임을 알 수 있는 경우(Table 6): 「風」문 문장에서는 골비(骨痺), 근비(筋痺), 맥비(脈痺), 육비(肉痺), 피비(皮痺)에 대해 각각 신·방광, 간·담, 심포·심, 비·위, 폐·대장의 수토혈(腧土穴), 합토혈(合土穴), 합수혈(合水土穴), 원혈(原穴) 등이 배합되어 있으므로, 육비(肉痺)에서 비경(脾經)의 태백과 함께 배합된 삼리는 위경(胃經)의 혈인 족삼리임을 알 수 있다.

「鍼灸篇·五臟六腑所屬五腧五行·胃」의 표는 위경(胃經)의 오수혈이므로 족삼리임을 쉽게 알 수 있다.

또한 「鍼灸篇·臟腑要穴」과 「六合所出入」의 문장에서는 ‘三里…爲六府之合’, ‘胃合入于三里’ 등의 구절을 통해 삼리가 위경(胃經)의 합혈인 족삼리를 가리킨다는 것을 알 수 있다. 「六合所出入」조문에서 한 번 더 등장하는 삼리 또한 위 문장과 이어지는 내용일 뿐 아니라 「取三里者, 低跗取之」라고 설명하고 있으므로 족삼리임을 알 수 있다.

## 3. 해당 문장의 병증이 족삼리의 주치에 해당하는 경우 (Table 7)

1) 토혈(吐血)에 사용된 조문: 토혈에 관한 「血」문 문장 속 삼리의 판별을 위해 침구갑을경과 침구자생경의 관련 문장에 대해 고찰해보았다. 『鍼灸甲乙經·卷之十一』 「動作失度內外傷發崩中瘀血嘔血唾血第七」에는 “胸中瘀血, 胸脇痞滿, 痞痛, 不能久立, 膝痿寒, 三里主之”라는 문장이 있다. 침구갑을경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권7에서 권12에 나열된 경혈의 배열순서가 거의 모든 경우 권3의

Table 6. A Case in which Samni is Used as an Acupoint of Stomach Meridian

| Chapter of <i>Dongui-Bogam</i> |              | Sentences in <i>Dongui-Bogam</i>  |
|--------------------------------|--------------|---|
| 風                              | 鍼灸法          | 骨痛, 取太谿·委中. 筋痺, 取太衝·陽陵泉. 脈痛, 取太陵·少海. 肉痺, 取太白·三里. 皮膚, 取太淵·合谷. <綱目>   |
| 鍼灸篇                            | 五臟六腑所屬五輸五行·胃 | 厲兌 內庭 陷谷 衝陽 解谿 三里<br>井金 榮水 謁木 原 經火 合土   |
| 鍼灸篇                            | 臟腑要穴         | 五藏腧, 二十五穴. 六府腧, 三十六穴. 并巨虛上下廉, 共六十四腧, 實切要之穴也. 藏府有病, 此六十四穴, 皆主之. 其太淵·太陵·太衝·太白·太谿, 爲五藏之原, 其三里·巨虛上下廉·委中·委陽·陽陵泉, 爲六府之合, 又切要中之切要, 而醫所最當先者也. 藏俞二十五, 府俞三十六, 合爲六十一俞, 加委陽·上廉·下廉, 是爲六十四俞也<綱目>  |
| 鍼灸篇                            | 六合所出所入       | 帝曰, 榮腧與合, 各有名乎. 岐伯曰, 榮腧治外經, 合治內府. 帝曰, 合各有名乎. 岐伯曰, 胃合入于三里, 大腸合入于巨虛上廉, 小腸合入于巨虛下廉此三府皆出足陽明也. 三焦合入于委陽, 膀胱合入于委中此二府皆出足太陽也. 膽合入于陽陵泉此一府出足少陽也. 帝曰, 取之奈何. 岐伯曰, 取三里者, 低跗取之, 取巨虛者, 舉足取之. 委陽者, 屈伸而索之, 委中者, 屈而取之. 陽陵泉者正聳膝, 與之齊下至委陽之陽取之. <靈樞> |

Table 7. A Case that the Sentence Deals with a Disease which Joksamni Treat

| Chapter of <i>Dongui-Bogam</i> |          | Sentences in <i>Dongui-Bogam</i>  |
|--------------------------------|----------|---|
| 血                              | 鍼灸法      | 吐血, 取風府·大椎·壘中·上脘·中脘·氣海·關元·三里. <綱目>  |
| 蟲                              | 鍼灸法      | 骨蒸勞熱, 灸膏肓·三里.   |
| 大便                             | 鍼灸法      | 大便不通, 取三間·承山·太白·大鍾·三里·湧泉·崑崙·照海·章門·氣海. <綱目>  |
| 大便                             | 鍼灸法      | 痢不止, 取合谷·三里·陰陵泉·中脘·關元·天樞·神闕·中極. <綱目>  |
| 眼                              | 鍼灸法      | 諸障翳, 取睛明·四白·太陽·百會·商陽·厲兌·光明, 各出血, 合谷·三里·命門·肝俞·光明, 各灸之. <綱目>  |
| 火                              | 鍼灸法      | 骨蒸勞熱, 取膏肓·三里. <綱目>  |
| 虛勞                             | 鍼灸法      | 此等灸法, 皆陽虛所宜. 華佗云, 風虛冷熱, 惟有虛者, 不宜灸. 但方書云, 虛損勞瘵, 只宜早灸膏肓·四穴膏肓四穴, 云乃虛損未成之際. 如瘦弱兼火, 雖灸, 亦只宜灸內關·三里, 以散其痰火. 早年, 欲作陰火, 不宜灸. <入門>  |
| 嘔吐                             | 鍼灸法      | 五噎五膈, 取天突·壘中·心俞·上脘·中脘·下脘·脾俞·胃俞·通關·中魁·太陵·三里. <綱目>  |
| 積聚                             | 鍼灸法      | 癥瘕積塊, 先於塊上鍼之, 甚者又於塊首一鍼, 塊尾一鍼, 立應鍼, 訖灸之. 又灸三里. <綱目>  |
| 脹滿                             | 鍼灸法      | 凡脹, 皆取三里, 是脹之要穴也.   |
| 鍼灸篇                            | 奇穴·取四花穴法 | 此灸法皆陽虛所宜. 華佗云, 風虛冷熱, 惟有虛者, 不宜灸. 但方書云, 虛損勞瘵, 只宜早灸膏肓·四花. 乃虛損未成之際, 如瘦弱兼火, 雖灸亦只宜灸內關·三里, 以散其痰火, 早年欲作陰火, 不宜灸. <入門>  |
| 鍼灸篇                            | 調養法      | 凡灸, 預却熱物, 服滋腎藥. 及灸, 選其要穴, 不可太過, 恐氣血難當, 灸氣海及煉臍, 不可臥灸. 素火盛者, 雖單灸氣海, 亦必灸三里瀉火. 灸後未發, 不宜熱藥, 已發, 不宜涼藥. 常須調護脾胃, 竣其自發, 不必外用藥物. 發時或作寒熱, 亦不可妄服藥餌. 落茄後, 用竹膜紙貼三五日, 次以麻油水粉煎膏貼之. 膿多者一日一易, 膿少者兩日一易, 使膿出多而疾除也. 務宜樽節飲食, 戒生冷, 油膩, 魚蝦, 笋蕨, 量食牛肉, 少雞長肉, 時方可量用猪肚, 老鴨之類. 謹避四氣七情六慾. <入門> |

순서와 일치한다는 점이다. 이는 침구잡을경 권3이 명당경의 원문을 직접 수록하였고, 잡을경의 편찬자가 권7-12 각 편에 수혈주치의 내용을 명당경의 차례에 따라 초록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짐작된다.<sup>5)</sup> 침구잡을경 권3에서 수삼리는 27번째 장에 위치하고 족삼리는 33번째 장에 위치하는데, 본 문장 앞 문장에 등장하는 中鄰(中都)혈은 침구잡을경 권3에서 31번째 장에 속하므로 본 삼리는 33번째 장에 속한 족삼리이다.

『鍼灸資生經·第四』「唾血(嘔血 吐血 餘見唾)」장에는 본 잡을경 문장이 거의 그대로 인용되어 있다.<sup>6)</sup> 따라서 침구자생경에서 토혈을 족삼리의 주치로 이해하였음을 알 수 있다.

(5) 黃龍祥, 中國針灸學術史大綱, 3<sup>rd</sup> edition, 서울: 법민문화사, 2005 : 166.

(6) 『鍼灸資生經·第四』「唾血(嘔血 吐血 餘見唾)」“三里主胸中瘀血, 積滿脇痛, 不能久立, 膝痿寒.”

2) 골증노열(骨蒸勞熱), 허손노체(虛損勞瘵)에 사용된 조문: 「虛勞」문 침구법의 “五勞羸瘦, 取足三里”라는 문장을 고려할 때, 「蟲」, 「火」, 「虛勞」문 문장의 주치 또한 골증노열 및 허손노체이므로 해당 문장의 삼리가 족삼리임을 알 수 있다.

3) 대변불통(大便不通)에 사용된 조문: 동일한 「大便」문 침구법의 문장인 “婦人產後, 腹脹, 大小便不通, 取氣海·足三里·關元·三陰交·陰谷.”에서 대소변불통에 족삼리를 취한 점을 고려할 때, 본 문장에서 대변불통에 쓰이는 삼리 또한 족삼리라고 판단할 수 있다.

4) 이질(痢不止)에 사용된 조문: 침구잡을경에는 “구토와 설사가 자주 나고 설사시 농혈이 나오며, 만약 토하려고는 하는데 나오는 게 없을 때에는 먼저 삼리를 취하고 후에 태백과 장문혈로 주치한다”<sup>7)</sup>라는 구절이 있다. 침구잡을경 권3에서 족삼리와 태백은 첫머리에 토(土)라고 되어 있고 장문은 비의 모혈(脾募)이라고 되어 있

Table 8. Sentences that Need Discussion

| Chapter of <i>Dongui-Bogam</i> |     | Sentences in <i>Dongui-Bogam</i>  |
|--------------------------------|-----|---|
| 神                              | 鍼灸法 | 健忘, 取列缺·心俞·神門·中腕·三里·少海, 又灸百會. <綱目>  |
| 血                              | 鍼灸法 | 衄血, 取上星·風府·瘰門·合谷·內庭·三里·照海. <綱目>   |
| 鼻                              | 鼻淵  | 一人鼻流濁涕, 有穢氣, 脈弦小, 右寸滑, 左寸澁. 先灸上星·三里·合谷, 次以酒芍 二兩, 蒼朮·半夏 各一兩, 辛夷·細辛·川芎·白芷·石膏·人參·葛根 各五錢, 右剉分七貼, 服之全愈. <丹溪> |
| 諸瘡·疥癬                          | 鍼灸法 | 治瘡疥頑癬. 取絕骨·三里·間使·解谿·委中, 或鍼或灸. <綱目>  |
| 諸瘡·疥癬                          | 鍼灸法 | 渾身瘡疥, 取曲池·合谷·三里·絕骨·行間·委中. <綱目>  |

으므로, 본 문장에서의 삼리는 족삼리라고 판단할 수 있다. 또한 '위기(胃氣)가 부족하여 장명과 복통이 있고, 설사를 하고 음식을 소화시키지 못하면 ... 삼리로 치료한다'는 구절이 있다.<sup>(8)</sup> 이를 통해 설사 증상은 초기 침구서적에서부터 위병으로 간주되었고, 따라서 족삼리의 주치증으로 인식되어왔음을 알 수 있다. 함께 쓰이는 경혈이 음릉천·중완·관원·천추 등 족삼리와 함께 사용되는 혈이라는 점, 동일한 「大便」문 침구법의 문장인 “婦人産後, 腹脹, 大小便不通, 取氣海·足三里·關元·三陰交·陰谷.”에 ‘足三里’가 기재되어 있다는 점 또한 참고할 수 있다.

5) 장예(障臂)에 사용된 조문: Table 1 「眼」문 “目昏暗, 灸三里...”의 삼리가 족삼리였으므로, 동일 문에 속한 본 문장의 삼리 또한 족삼리라고 판단할 수 있다. 또한 동의보감 침구편 「足陽明胃經左右凡九穴·三里二穴」의 “明堂云, 人年三十以上, 若不灸三里, 令氣上衝目.”라는 문장을 참고할 때, 삼리에 명목(明目)의 효능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황룡상은 『千金翼方』의 “人年三十以上, 若灸頭不灸三里穴, 令人氣上眼晦, 所以三里下氣也.”라는 문장이 수 세기에 걸쳐 인용되는 과정에서 어떻게 뜻이 조금씩 변화해갔는지를 보여주는데,<sup>(9)</sup> 동의보감의 “明堂云, 人年三十以上, 若不灸三里, 令氣上衝目.”라는

문장 또한 그 한 예라고 볼 수 있겠다. 인용을 거치며 문장의 의미가 처음에 비해 약간 달라지긴 하였지만, 이 과정을 통해 삼리가 눈을 밝게 하는 효능이 있다는 인식이 형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의학강목에서는 장예(障翳)라는 보다 구체적인 질병명에 삼리를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

6) 열격(噎膈)에 사용된 조문: Table 1 「嘔吐」문 “反胃神效, 膏肓俞, 灸百壯, 膻中·三里, 各灸七壯.”의 삼리가 족삼리였으므로, 동일 문에 속한 본 문장의 삼리 또한 족삼리라고 판단할 수 있다. 동의보감 내에서 열격, 반위가 동일한 항목으로 묶여있는 점도 참고할 수 있다.

7) 장기적괴(癥瘕積塊)에 사용된 조문: Table 1 「積聚」문 “伏梁, 取上腕·三里”의 삼리가 족삼리였으므로, 동일 문에 속한 본 문장의 삼리 또한 족삼리라고 판단할 수 있다.

8) 창만(脹滿)에 사용된 조문: 「脹滿」문 침구법의 “脹滿, 取足三里瀉之.”라는 문장을 고려할 때, 본 문장의 삼리 또한 족삼리임을 알 수 있다.

위병(胃病)으로서의 창만과 그 치료혈로서의 삼리에 대한 언급은 황제내경에서부터 나타나며,<sup>(10)</sup> 침구잡을경에서는 “五藏六府之脹, 皆取三里, 三里者, 脹之要穴也.”라는 구절이 등장하여 삼리가 창만의 요혈로 굳어졌다.<sup>(11)</sup>

9) 사회(瀉火)를 효능으로 하는 조문: 침구편 「奇穴·取四花穴法」 및 「調養法」의 문장에서는 삼리의 효능을 ‘散其痰火’ 혹은 ‘瀉火’라고 설명하고 있다. 침구편 「奇穴·取膏肓膈穴法」 “可灸氣海及足三里, 瀉火實下” 및 「奇穴·取四花穴法」 “亦要灸足三里以瀉火氣爲妙”라는 문장을 통해 족삼리에 사회(瀉火)의 효능이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두 문장에서 삼리는 족삼리임을 알 수 있다.

#### 4. 기타 논의가 필요한 경우(Table 8)

1) 건망(健忘)에 사용된 조문: 황제내경과 침구잡을경, 침구자생경에는 건망에 삼리를 쓰는 예가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침구잡을경에서 족삼리의 주치로 ‘狂歌妄言, 怒, 惡人與火, 罵詈’를 들고 있는 점으로 보아 「神」문 문장의 삼리는 족삼리인 것으로 보인다.<sup>(12)</sup>

(7) 『鍼灸甲乙經·卷之七』 「六經受病發傷寒熱病第一下」 “善嘔泄有膿血, 若嘔無所出, 先取三里, 後取太白, 章門主之.”, 홍도현, 주해한글침구잡을경, 1<sup>st</sup> edition, 서울: 의성당, 2012 : 589-90.

(8) 『鍼灸甲乙經·卷之九』 「脾胃大腸受病發腹脹滿腸中鳴短氣第七」 “胃氣不足, 腸鳴腹脹, 泄, 食不化, 心下脹, 三里主之.” 본 문장 앞에 위치한 거허상림이 침구잡을경 권3에서 33번째 장에 속하고 본 문장 뒤에 위치한 현중이 34번째 장에 속하므로 본 삼리는 33번째 장에 속한 족삼리이다.

(9) 黃龍祥, 中國針灸學術史大綱, 3<sup>rd</sup> edition, 서울: 법인문화사, 2005 : 65.

(10) 『靈樞·邪氣臟腑病形』 “胃病者, 腹脹脹, 胃脘當心而痛, 上支兩脇, 膈咽不通, 食飲不下, 取之三里也.” 『靈樞·脹論』 “營氣循脈, 衛氣逆爲脈脹, 衛氣并脈循分爲膚脹. 三里而瀉, ...”

(11) 『鍼灸甲乙經·卷之八』 「五藏六府脹第三」 “五藏六府之脹, 皆取三里, 三里者, 脹之要穴也.”

(12) 『鍼灸甲乙經·卷之七』 「足陽明脾病發狂走第二」 “狂歌妄言, 怒, 惡人與火, 罵詈, 三里主之.” 본 문장 앞에 위치한 내정(內庭)이 침구잡을경 권3에서 33번째 장에 속하므로, 본 삼리는 33번째 장에 속한 족삼리이다.

물론 침구갑을경의 문장은 건망과는 다른 실증(實證)의 양상이지만, 정신질환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 따라서 경혈 주치에 관한 초기 버전에 해당하는 침구갑을경에서부터 족삼리가 정신질환을 치료하는 데에 쓰였고, 종합서적의 성격을 띠는 의학강목의 시기에 이르러 삼리의 주치가 다양한 정신질환을 포괄하는 방향으로 확대되어갔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증완과 함께 쓰인 점 또한 참고할 수 있다.

2) **육혈(衄血)에 사용된 조문:** 「血」문 문장에 대한 고찰을 위해 황제내경, 침구갑을경, 침구자생경 및 의학강목에서 혈(血)과 관련한 삼리 주치를 비교하였다.

황제내경에서는 『靈樞·五邪』편에서 여러 가지 병증과 함께 ‘惡血在內’가 언급되고, 치료법 가운데 삼리가 언급되는 정도에서 그치고 있다.<sup>(13)</sup>

침구갑을경에는 “구토와 설사가 자주 나고 설사시 농혈이 나오며, 만약 토하려고는 하는데 나오는 게 없을 때에는 먼저 삼리를 취하고 후에 태백과 장문혈로 주치한다”<sup>(7)</sup>라는 구절이 있으며, 또한 ‘홍중어혈 … 에 삼리를 쓴다’<sup>(14)</sup>는 문장이 있다.

침구자생경 「唾血(嘔血 吐血 餘見唾)」장에는 ‘홍중어혈에 삼리를 쓴다’는 갑을경 문장이 그대로 인용되어 있다.<sup>(6)</sup> 「咳嗽」장 첫머리에는 ‘삼리는 해수다타(咳嗽多唾)를 치료한다’는 문장이 나온다.<sup>(15)</sup> 「咳逆」장에는 ‘삼리는 해역다토(咳逆多吐)를 치료한다’는 문장이 나오고,<sup>(16)</sup> 그 뒤에 『鍼灸甲乙經·卷之七』「六經受病發傷寒熱病第一下」의 문장이 「咳唾, 噫, 善咳, 氣無所出이 있을 때 삼리를 취한다’는 문장으로 바뀌어 인용되어 있다.<sup>(17)</sup> 그 외에 부인과 질환으로는 「血塊(瘀血)」장에서 ‘삼리는 홍중어혈을 치료한다’고 짚막하게 언급하고 있다.<sup>(18)</sup> 「鼻衄」장에서는 삼리에 관한 어떤 언급도 없다.

(13) 『靈樞·五邪』“邪在肝, 則兩脇中痛, 寒中, 惡血在內, 行善掣, 節時脚腫, 取之行間以脇下, 補三里以溫胃中, 取血脈以散惡血, 取耳間青脈, 以去其擊.” ‘삼리를 포함으로써 위중(胃中)을 따뜻하게 한다’는 구절이 있으므로 족삼리임을 알 수 있다.

(14) 『鍼灸甲乙經·卷之十一』「動作失度內外傷發崩中瘀血嘔血唾血第七」“胸中瘀血, 胸脇痞滿, 兩痛, 不能久立, 膝痿寒, 三里主之.”

(15) 『鍼灸資生經·第四』「咳嗽(餘見咳逆) “三里主咳嗽多唾(《千》).”

(16) 『鍼灸資生經·第四』「咳逆(餘見咳逆上喘 傷寒嘔噦) “三里主咳逆多吐.”

(17) 『鍼灸資生經·第四』「咳逆(餘見咳逆上喘 傷寒嘔噦) “咳唾, 噫, 善咳, 氣無所出, 先取三里, 後取太白, 章門(并《千》).”

(18) 『鍼灸資生經·第七』「血塊(瘀血) “三里治胸中瘀血(《銅》).”

(19) 『素問·氣厥論篇』“膈移熱於腦, 則辛頰鼻淵, 鼻淵者, 濁涕下不止也, (腦液下滲, 則爲濁涕, 涕下不止, 如彼水泉, 故曰鼻淵也. 頰, 謂鼻頰也. 足太陽脈, 起於目內眥, 上額交巔上, 入絡腦. 足陽明脈, 起於鼻, 交頰中, 傍約太陽之脈. 今腦熱則足太陽逆, 與陽明之脈俱盛, 薄於頰中, 故鼻頰辛也. 辛, 謂酸痛. 故下文曰:”

『醫學綱目·卷之十七 心小腸部』「諸見血門」장에는 ‘衄血’, ‘久衄’, ‘產後衄’, ‘吐血’, ‘咳唾血’, ‘妊孕咳唾血’, ‘溲血’, ‘妊娠尿血’, ‘下血’, ‘中蠱下血’의 하위항목이 있는데, 이 중 삼리는 ‘衄血’에서 2회, ‘吐血’에서 1회, ‘咳唾血’에서 1회, ‘下血’에서 1회 출현한다. 이처럼 황제내경에서 의학강목에 이르기까지 혈(血)과 관련한 삼리의 주치 범위가 점차 확대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상의 예에서 황제내경과 침구갑을경의 삼리는 족삼리라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침구자생경에서도 침구갑을경의 문장을 상당수 인용하고 있으므로 해당 삼리가 족삼리를 지칭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이상의 예를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때 의학강목 「諸見血門」에 등장하는 삼리도 모두 족삼리를 지칭하는 것이며, 삼리의 주치가 기왕의 토혈, 해타혈 뿐 아니라 육혈(衄血), 하혈 등을 포괄하는 방향으로 확대되어갔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3) **비류탁체(鼻流濁涕)에 사용된 조문:** 황제내경, 침구갑을경, 침구자생경에는 비연(鼻淵) 및 유사 증상에 삼리를 쓰는 예가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素問·氣厥論篇』“膈移熱於腦 則辛頰鼻淵, 鼻淵者 濁涕下不止也”에 대한 왕빙주를 보면 비연에 관여하는 두 경맥으로 족태양맥과 족양명맥을 들고 있기 때문에,<sup>(19)</sup> 비류탁체(鼻流濁涕)에 관한 「鼻」문 문장의 삼리는 족삼리라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4) **창개완선(瘡疥頑癬)에 사용된 조문:** 황제내경과 침구갑을경, 침구자생경에는 개선(疥癬) 및 유사 증상에 삼리를 쓰는 예가 존재하지 않는다. 단 “治瘡疥頑癬. 取絕骨·三里·間使·解谿·委中, 或鍼或灸”에서 절골·간사·해계·위중이 모두 다리에 위치한 경혈이므로 본 문장에서 삼리는 족삼리라고 판단할 수 있다. “渾身瘡疥, 取曲池·合谷·三里·絕骨·行間·委中.” 문장 또한 절골·행간·위중과 함께 쓰이고 있고 앞 문장과 주치가 동일하므로 족삼리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창개완선은 건망 및 육혈과 유사하게 족삼리 주치가 확대되면서 새로이 출현한 주치로 이해할 수 있다.

족삼리가 초기 단계에서부터 다양한 주치를 포함하고 있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욱 주치가 확대되는 경향을 보이는 데에 비해, 수삼리의 주치는 ‘腹臍時寒, 腰痛不得臥(침구갑을경), ‘手臂不仁, 肘掌不伸, 齒痛, 頰頰腫, 瘰癧(동인수혈침구도경), ‘肩背疼, 臂膊痛麻痺(동의보감) 등 시대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주치가 특정된 영역에 국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 결론

1. 동의보감에서 ‘三里’라고 기재된 62개 조문 중 판별을 요하는 52개 조문의 원출전을 확인한 결과 11개 조문의 출전에서 삼리가



‘足三里’, ‘足陽明經三里’, ‘三里…在膝下三寸’ 등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또한 7개 조문의 출전에서 위(胃)가 삼리와 같이 언급되거나 족삼리 주치가 언급되어 족삼리임을 알 수 있었다. 4개 조문에서 삼리를 다리에 위치한 경혈로 인식한 서술이 존재하였고, 3개 조문의 원출전 해당 장에서 삼리와 족삼리가 동일한 의미로 병용되었다. 따라서 원출전을 확인한 결과 총 25개 조문에서 삼리는 족삼리임을 알 수 있었다.

2. 6개 조문에서는 위(胃)를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고, 4개 조문에서는 삼리가 위경(胃經)의 합혈로서 등장하므로 총 10개의 조문의 삼리는 족삼리임이 명확하다.

3. 토혈(吐血), 대변불통(大便不通), 리부지(痢不止), 장애(障臂), 열격(嘔隔), 장가적괴(癥瘕積塊), 창만(脹滿), 골증노열(骨蒸勞熱), 허손노채(虛損勞瘵) 등 10개 조문의 병증이 족삼리 주치에 해당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사화(瀉火)를 효능으로 하는 2개 조문 또한 동의보감 내에 족삼리라는 근거가 존재한다.

4. 기타 논의가 필요한 조문의 고찰 결과, 건망 및 육혈은 족삼리의 주치 범위가 확대된 결과 후대에 포함된 주치로 볼 수 있다. 비류탁체(鼻流濁涕)의 경우, 왕빙주에서 비연(鼻淵)을 족태양경과 족양명경의 문제로 인식하였다. 창개완선(瘡疥頑癬)에 쓰이는 삼리는 동용혈을 고려할 때 족삼리라고 판단된다.

5. 따라서 동의보감 내에서 판별을 요하는 52개 삼리 중 47개는 족삼리라고 확실히 말할 수 있고, 추가로 논의한 5개의 조문 또한 모두 족삼리라고 판단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동의보감에 기재된 8개의 동명이혈 중 가장 많이 출현한 삼리만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기 때문에 추후 기타 동명이혈에 대해서도 본 논문과 동일한 방식의 작업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동의보감에 기술된 ‘三里’ 가운데 특별히 ‘手三里’를 지칭하지 않은 것들은 모두 ‘足三里’임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이를 근거로 모든 의서의 삼리를 족삼리로 해석할 수는 없다. 가령 『鍼灸甲乙經校注』에서는 침구갑을경 원문의 ‘手三里’를 모두 ‘三里’로 교감하였다. 왜냐하면 ‘침구갑을경에서는 동명이혈에 수(手), 족(足) 자를 붙이지 않으며, 또한 기타 저서(외대비요 권39, 천금요방 권29, 의심방 권2, 동인수혈침구도경 권5)와 비교해볼 때 수삼리의 ‘手’자는 주석이 정문(正文)으로 잘못 삽입된 것’이라고 보았기 때문이다.<sup>(20)</sup> 이를 통해 침구갑을경을 비롯한 각종 서적에서 족삼리와 수삼리 모두 삼리라는 명칭으로 기술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동

의보감을 제외한 여타 서적에서 수삼리가 삼리로 표기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다른 서적에서 출현하는 삼리에 대해서는 다시 추가적인 판별이 요구된다.

## 감사의 글

This work was supported by 2015 Research Grant of Wonkwon University.

## References

1. Hwang LX, *Abridged Academic History of Acupuncture & Moxibustion in China*, 3rd edition, Seoul: Beobin Publishers Co., 2005.
2. Heo J, *Dongui-Bogam: Treasured Mirror of Eastern Medicine*, 3rd edition, Seoul: Namsandang Publishers Co., 2009.
3. Wang ZZ, *Chimgu-Jasaenggyeong: Classic of Nourishing Life with Acupuncture and Moxibustion*. In Hwang LX, *Chimgu-Myeongjeo-Jipseong: Acupuncture Masterpiece Integration*, 1st edition, Beijing: Shinhwashudian Publisher Co., 1996.
4. Hong DH, *Juhae Hangeul Chimgu-Gabeulkyeong: A-B Canon of Acupuncture and Moxibustion, with Collation and Vernacular Translation into Korean*, 1st edition, Seoul: Uiseongdang, 2012.
5. Zhang CJ and Xu GQ, *Chimgu-Gabeulkyeong Gyeoju: A-B Canon of Acupuncture and Moxibustion, with Collation and Commentary*, 1st edition, Beijing: People's Medical Publishing House Co., 1996.
6. Guo AC, *Huangdi-Neijing Lingshu Gyeoju Eoyeok: Collation, Commentary, and Vernacular Translation of the Inner Canon of the Yellow Emperor: Divine Pivot*, 1st edition, Tianjin: Tianjin Science and Technology Press, 1999.
7. Guo AC, *Huangdi-Neijing Suwen Gyeoju: The Inner Canon of the Yellow Emperor: Basic Questions, with Collation and Commentary*, 1st edition, Beijing: People's Medical Publishing House Co., 1995.
8. Lu Y, *Gyeoseok Uihak-Gangmok: Collation and Commentary of Compendium of Medicine*, 1st edition, Seoul: Beobin Publishers Co., 2010.

(20) 張燦理, 徐國軒, 鍼灸甲乙經校注, 1<sup>st</sup> edition,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6: 641, 1591.

9. Du SJ, *Chimgyeong-Jeokyeongjip: Adequate and Excellent Compilation of Acupuncture Canon*. In Hwang LX, *Chimgu-Myeongjeo-Jipseong: Acupuncture Masterpiece Integration*, 1st edition, Beijing: Shinhwashudian Publisher Co., 1996.
10. Wang GR, *Pyeonjak-Sineung-Chimgu-Okryonggyeong: Bian-Que's Acupuncture and Moxibustion Jade Dragon Classic of Divine Message*. In Hwang LX, *Chimgu-Myeongjeo-Jipseong: Acupuncture Masterpiece Integration*, 1st edition, Beijing: Shinhwashudian Publisher Co., 1996.
11. Xu SW, *Boje-Bonsabang: Moxibustion in Prescriptions for Universal Relief*. In Ge H, *Juhu-Bigebbang: Handbook of Prescriptions for Emergencies*, 1st edition, Beijing: People's Medical Publishing House Co., 1996.
12. Luo TY, *Wisaeng-Bogam: Treasured Mirror of Hygiene*, 1st edition, Seoul: Keumkang Publisher Co., 1981.
13. Gong TX, *Manbyeong-Hoechun: Recovery from All Ailments*, 1st edition, Seoul: Beobin Publisher Co., 2007.
14. Li C, *Pyeonju Uihak-Ipmun: Compilation of and Commentary on Introduction to Medical Studies*, 2nd edition, Seoul: Nam-sandang Publishers Co., 1991.
15. Wang WY, *Dongin-Suhyeol-Chimgu-Dogyeeong: Illustrated Manual of Acupuncture Points of the Bronze*. In Hwang LX, *Chimgu-Myeongjeo-Jipseong: Acupuncture Masterpiece Integration*, 1st edition, Beijing: Shinhwashudian Publisher Co., 1996.